

김현미 장관, “사고에도, 질병에도 안전한 하늘 길” 강조

- 23일 인천공항 찾아 안전한 하늘길을 위한 현장 점검 및 근무자 격려**
-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공항방역 체계 집중점검 및
연휴기간 이용객 불편 방지를 위한 공항 혼잡 예방 만전 당부**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(목) 우리나라의 관문공항인 인천 국제공항을 찾아 설 연휴 특별수송 대책 및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,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여 출입국현장의 검역상황을 집중 점검하였다.
- 김 장관은 이용객이 급증하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 불편이 없도록 공항직원들에게 사고 및 혼잡 예방을 당부하는 한편,
-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검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- 특히, 김 장관은 게이트 검역 현장을 찾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대 운영현황 및 출입국자 예방홍보 활동을 점검하고,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검역관들을 격려하였다.
- 아울러, 항공기 기내청소 근무자 등 지상조업 근로자에 대한 검역 예방 조치 등에 대하여도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

2020. 1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